

윤석민 '선발 담금질'

오키나와에 '겨울 캠프'... 내년 시즌 몸 만들기

심동섭·유창식과 함께 10일 출국 내달 5일까지 따뜻한 곳에서 훈련 "준비 잘해 내년 자신감 키우겠다"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이 일본 오키나와에 ‘부활 캠프’를 차린다.

KIA 투수 윤석민이 10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난다. 절친한 후배인 좌완 심동섭과 유창식까지 대동하고 길을 나서서 윤석민은 내달 5일까지 오키나와에 머물면서 2016시즌을 위한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따뜻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채우면서 선발 윤석민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윤석민의 구상과는 다른 2015시즌이었다. 스프링캠프가 끝나고 뒤늦게 그의 한국행이 결정이 됐고, 완벽하지 않았던 몸 상태로 선발이 아닌 마무리 자리에서 복귀 시즌을 맞았다. 부족했던 시즌 준비로 몸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지만 윤석민은 노련함으로 뒷문을 틀어막으면서 2%의 평균자책점으로 30세이브를 수확했다. 윤석민은 타이거즈 역사상 네 번째 30세이브 기록을 작성하면서 KIA의 첫 30세이브 투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그의 보직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윤석민은 “100승 100세이브를 채우고 싶다. 승과 세이브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감동, 팀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다. 올 시즌을 통해 ‘75승 74세이브’ 투수가 된 그는 내년 시즌에는

승수 쌓기에 나선다. 선발로 돌아가게 되는 그는 또 다른 책임감으로 이번 자체 캠프를 계획했다.

‘아프지 않고 잘하는 것’이 이번 오키나와 캠프의 목표이자 내년 시즌의 목표이다. 올 시즌 어깨·팔꿈치 등이 좋지 않아서 고전했던 그는 일찍 시즌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됐다. 이제는 슬슬 시동을 걸어야 할 때라는 게 윤석민의 이야기다.

윤석민은 “어깨 상태가 오래 쉬면 설수록 안 좋아진다. 한국에서는 마땅히 공 던질 곳도 없고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다. 내년 시즌에 대비해 몸을 만드는 준비 과정이다”고 이번 오키나와행에 대해 설명했다.

아쉬웠던 지난 2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캠프이기도 하다. 앞선 두 번의 겨울, 윤석민은 불확실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시즌을 준비했었다. 사연 많았던 미국 진출 과정과 한국 복귀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 편하게 원없이 시즌을 준비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우려 속에 시작했던 올 시즌을 잘 마무리했고, KIA의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게 된 만큼 마음은 가볍다.

윤석민은 “지난 2년 스프링 캠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는데 그림에도 올 시즌을 좋게 마무리해서 내년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준비를 잘 해서 걱정 없이 내년 시즌을 맞고 싶다. 열심히 많이 재미있게 하고 올 생각이다. 특별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앞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겠다. 아프지 않고 당당하게 내 역량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말비 FF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골을 몰아넣으면서 8-0 승리를 이끌었다. 첫 번째 골에서부터 네 번째 골까지 호날두가 다양한 표정으로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4골 대폭발 UEFA 챔스 레알마드리드, 말비 8대0 대파

‘기록의 사나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다. 호날두는 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조별리그 말비와의 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었다. 이로써 호날두는 올시즌 챔피

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2013-2014 시즌에 세운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조별리그 최다골 기록(9골)을 가볍게 넘어섰다. 또한 호날두는 5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에서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통산 최다득점 기록도 88골로 늘렸다. 이날 경기에서 모두 56회 공을 잡은 호

날두는 슈팅을 10회 날렸고 그 중 유효슈팅은 6회였다. 호날두는 4득점 외에도 도움도 1회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활약에 힘입어 말비를 8-0으로 대파했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프랑스 경찰에 기소된 카림 벤제마도 3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유로파리그 골사냥 나선다

토트넘, 내일 AS모나코전 독일 지동원·구자철도 출격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사인’ 손흥민이 지금껏 강한 면모를 보여온 유로파리그에서 골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AS모나코(프랑스)와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6차전을 치른다.

레버쿠젠시절 한 수 위인 챔피언스리그에서 뒤편이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이적 후 유로파리그 팀을 상대로 뛰어난

공격력을 선보였다.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3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EPL 진출 직후인 지난 9월 ‘조용한 데뷔전’이라는 별칭을 평가를 일거에 뒤집은 것도 유로파리그 카라바키(아제르바이잔)전에서 2골을 뽑아낸 덕분이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8경기째 골맛을 보지 못했다. 최근 부상 등과 맞물려 잠시 멈췄던 득점포를 재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손흥민은 이날 승리가 절실한 AS모나코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과제다. AS모나코는 승점 6점으로 승점 7점인 안더레흐트(벨기에)에 뒤진 조 3위에 머물러 있다. 토트넘(승점10)은 이미

AS모나코전 결과와 상관없이 유로파리그 32강행을 확정지은 상태다.

한편 유로파리그 L조 3위에 처져있는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지구특공대’ 지동원과 구자철은 같은 시간 파르티잔(세르비아)과 맞붙는다.

32강행을 확정지은 도르트문트의 박주호는 PAOK살로니카(그리스)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파 태극전사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6차전 일정

▲11일(금) 도르트문트-PAOK살로니카(03시·박주호 홈) 아우크스부르크-파르티잔(지동원·구자철 원정) 토트넘-AS모나코(이상 05시5분·손흥민 홈) /연합뉴스

홍명보장학재단 자선축구경기 구자철·이승우 출전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과 한국 축구의 유망주 이승우(FC바르셀로나)가 홍명보장학재단 자선축구경기에 출전한다.

홍명보장학재단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자선축구경기에 참가할 선수진 일부를 9일 공개했다.

출전 명단에는 올해를 끝으로 14년간의 선수생활을 마감한 ‘풍운아’ 이천수

(인천), 소속팀의 정규시즌 우승 등 2관왕을 이끈 ‘지메시’ 지소연(헬스 레이스)도 이름을 올렸다.

‘일밤의 마법사’ 염기훈(수원), ‘인민루니’ 정대세(시미즈 S펄스)와 분데스리가의 김진수(호펜하임) 등도 행사에 동참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청춘FC 형그리일레본’에 출연했던 염호덕도 나온다.

입장권은 자유석(1만원), 플로어석(특석·3만원) 두 가지이며 OK티켓 사이트(www.okticket.com)에서 살 수 있다.



구자철

이승우

올해 행사는 ‘청년실업 해소’를 주제로 진행되며 경기 수익금 중 일부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 /연합뉴스

광주시배구협회장 전갑수씨 선출

전갑수(55) 광주시배구협회 부회장이 제 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배구협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갑수 현 부회장을 제 12대 광주시배구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 회장은 현재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전 회장은 배구협회 부회장을 지내면서 꿈나무 배구 장학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지난 2013년 광주 유일의 실업팀을



창단하기도 했다.

전 회장은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 스포츠인 배구가 광주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